

국제유가, 2007년 63달러대 유지

로이터, 54.50-76달러 사이 움직일 듯 ... 예측 편차 21달러 달해

국제유가는 2007년 배럴당 평균 63달러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로이터가 37개 주요 금융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2007년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예측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은 2007년 유가를 최저 54.50달러에서 높게는 76달러까지 예측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조사한 37명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유가 평균치는 63.48달러로 2주전 조사 때보다 배럴당 26센트 떨어진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도 2007년 유가 예상치를 배럴당 72.50달러 내외로 3달러 떨어뜨렸다. 이유로는 3/4분기 이후 원유 재고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2대 에너지 거래사 중 하나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1월부터 하루 120만배럴을 감축한데 이어 2007년 2월부터 50만배럴을 추가 감축키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석유 수급 예측이 어렵다면서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경제전망이 불확실한 것도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전했다.

또 지정학적 불안도 유가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요소로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외국 석유회사를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나이지리아 무장세력은 12월23일(현지시각) Royal Dutch/Shell과 ENI의 석유설비에 대한 공격이 자기네 소행이라면서 곧 추가 테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6>